

第259回國會
(臨時會)

教育委員會會議錄

第 5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6年4月28日(金)

場 所 教育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審査된案件

(10시26분 개의)

○위원장 황우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정봉주 위원 외 도합 8인의 위원으로부터 개회 요구가 있어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개회요구서에는 오늘 상정될 안건으로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 법률은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법안일 뿐만 아니라 교섭단체 간사 간 의사 일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늘 전체회의 의사일정으로 정식으로 상정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지병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문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2개의 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교육법의 경우에는 지난해 수능과 관련하여 휴대전화나 MP3같이 소지를 금지한 물

품을 학생들이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지침상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현행 법상 당해 시험이 무효로 되고 그다음해에 실시되는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해서 금지물품을 휴대했을 경우하고 실제로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그 법안이 상정되어 있고, 또 여야 위원님들이 그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만 논의를 하면 처리되는 데 문제가 없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역시 국민들의 관심이나 지금 우리 독도 문제를 포함해서 역사 왜곡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시급히 이 법안을 처리해서 재단을 만들고 주권 수호나 역사 왜곡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사립학교법과 연계시켜서 법안소위의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회의에 응하지 않아서 지금 이것이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4월 국회가 며칠 남아 있지 않고, 또 이러한 법안들의 시급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7월 7일에는 수능시험 공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사립학교법 때문에 한나라당이 여러 법안들을 연계하고 있으나 이 두 가지 법률의 경우에는 너무도 시급한 법안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법안심사소위의 심사기일을 지정하셔서 최소한 5월 1일이나 2일,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정해 주시고, 한나라당 위원들께서 법안소위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는 것이 국민에 대한 우리 국회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

○**이인영 위원** 유기홍 위원님이 아까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같은 취지의 말씀 아니실까요?

○**조배숙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조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최근에 한·일 관계가 상당히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일본 측에서의 독도 근처 해저탐사랄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일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동북아역사재단에 관한 법은 외교 관계에 비추어 봐서도 상당히 시급한 법률입니다. 또 그것 이외에 로스쿨 관련 법안, 이렇게 민생 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쟁점 법안이 있고 민생 법안이 있을 때 저는 전체 국민을 위해서 민생 법안에 있어서는 좀 빨리 논의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같은 쟁점 법안,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논의도 해야 될 이런 사항에 대해 이 부분이 한 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볼모로 해서 정말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병문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대로 이 시급한 법안에 대해 심사기일을 지정하셔서 법안심사소위에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 일본이 우리 한국 정부가 그동안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다”는 표현에서 이제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바꾸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일본은 그동안 독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연구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부 따로, 국회 따로, 학계 따로, 시민·사회 단체 다 따로따로 대응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독도 관련 망언이 있을 때마다 시민단체들은 시위하고, 학계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신용하 교수를 포함한 몇 분들이 스피커 역할을 좀 하고, 정부나 국회도, 지난번에 결의안도 우리 교육위 이름으로 제안해서 채택이 됐습니다만, 마치 냄비처럼 일과성으로 지나갔던 일이 많았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북아역사재단법을 저를 포함해서 23명의 의원들께서…… 그 중에는 한나라당 의원도 두 분 포함되어 있고 교육위에서 두 분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어찌 보면 체계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마 일본은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예정된 수순들을 계속 밟아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여망이 모여있는 이 시점에…… 어제 시민단체들이 와서 항의하기도 했고 또 국회의장님을 뵙고 직권상정해 달라는 요청까지도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에서는 사설로까지 ‘일본은 독도 생떼 쓰는데 국회는 뭐 하나’ 이런 제목으로 해서 동북아역사재단법이 정쟁의 볼모로 되어 있는데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반대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나라당이 교육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원내대표께서 재개정 문제에 대한 전권을 쥐고 우리 교육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분개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우리 교육위원들은 잘 알 겁니다. 거기에 ‘등’자 하나 넣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독도는 대한민국 등의 영토로 한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듯이 ‘등’자 하나를 넣는 것 가지고 뭘 그러냐라고 하는 이재오 원내대표의 말을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일괄타결하겠다고 하는데 볼모가 되어서 동북아역사재단법이 심의도 제대로 되지 않고 5월 2일 임시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서는 당을 떠나서 정쟁의 볼모로 되어 있는 동북아역사재단법을 정략적 판단

을 떠나서 우리 교육위에서 시급하게 의결해서 이번 임시국회 중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봉주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 지난번 의사진행발언 때도 말씀 드렸지만 1월부터 4월까지 교육위에서 단 한 건의 법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상임위 중에 130개 법안, 가장 많은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나라당 입장에서 보면 사립학교법을 12월 9일에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하겠지만 그것은 이미 국민들 60~70%의 동의를 얻고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통과되면 일단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에도 한나라당의 주장을 대부분 반영했습니다. 사학법 인연합의 주장도 반영했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후퇴하면서 한나라당의 주장을 수용했는지 보십시오.

2월 국회 때 개정안이라면서 두 달 만에 법안을 가져오기에 상정할 수 없다, 우리가 2월 국회 때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4월 국회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정하는 것을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4월 18일에……

○이인영 위원 왜 받아주었어요?

○정봉주 위원 지금 로스쿨이나 이런 것이 워낙…… 지금 동료 위원이 왜 받아주었느냐고 물어보는데 로스쿨이나 이런 것이 워낙 급하고 그것을 가지고 빗장을 채워놓고 있으니까 ‘좋다, 그러면 상정하자, 논의하자’…… 몇 번이나 약속을 어겼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법도 동료 위원들이 다 얘기했는데 저는 지금 이 장면을 생방송으로 찍어서 우리나라에 방영하는 것보다 일본에 방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사람들이 춤추고 있어요. 얼마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 독도 침탈한다고 들락날락하면 정부는 독도 침탈 못한다고 하는데 국회는 이 근거가 되는 법안 하나 통과 못 시키고 매일 싸우고 있고…… 한나라당이 대한민국 소속 정당입니까, 일본 소속 정당입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 일본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구구절절이 부동산투기환수법 이런 모든 민생법, 로스쿨…… 율사로 오랜 세월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번에 통과 안 되면 2008년에 시행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 2009년도로 미뤄지면서 사법 개혁은 아마 1년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미뤄질 겁니다.

이런 것에 사립학교법으로 빗장을 채워놓는 것에 도대체 어떤 국민이 동의할 지, 이 오만불손한 한나라당의 작태를 언제까지 국민들이 용인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님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동북아역사재단법 그리고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올해 수능에서도 단순 소지자들도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2년 동안 시험 못 봐요. 국회와…… 행정부는 둘째 치고 그 모든 비난을 국회가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누가 발의한 겁니까?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것이요. 자당 의원이 발의한지도 모르고 사립학교법만 걸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고……

이번에 감사원에서 감사한 23개 대학교에서 다 비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경미한 것에서부터 중량감 있는 것까지…… 이래서 우리가 사립학교법 개정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더이상 기다리지 마시고요, 심사기일 지정하십시오. 여기에서 통과 안 되면 동북아역사재단법 의장한테 가서 창피해서 또 직권상정해 달라고 요청합니까? 교육위에 걸려있는 법마다 직권상정해 달라고 하고……

위원장님께서 심사기일 지정하시고 그 지정이 안 되면 당당하게 소신껏 원내대표하고 당대표한테 가서 요청하셔야지요. 더이상 정치적 이유로 교육을 농락하지 말라고…… 독도 문제를 어떻게 정치적 이슈로 막습니까? 일본사람들이 춤추고 좋아하고 난리가 날 텐데……

위원장님께서 심사기일 지정해 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창피함과 수모를 더이상 교육위가 당하지 않고 정치적 이슈에 휘둘리는 교육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용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재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위원** 우리 교육위가 17대 국회 상임위 중에 가장 비효율적인 운영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아주 긴 터널을 들어가는 느낌인데요. 지난번 사립학교법 개정할 때 오늘과 같은 상임위 파행, 기피, 정략적 이용 이런 것을 너무도 많이 겪어온 교육위입니다.

지금 17대 국회 반환점에 접어들고 있는 이 즈음에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상임위를 이끄신 책임자로서 한번 반추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년 동안의 이런 상임위 운영과 같은 행태가 하반기 국회에도 계속되느냐 안 되느냐의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단을 내려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가슴 아픈 말씀일지는 몰라도 동북아역사재단 관련법에 대해서조차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정치적 잣대를 들이밀고 사립학교법하고 연계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흑시라도 한나라당은 친일의 피가 흐를 수밖에 없는 역사적 정당의 흔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당리당략이나 이런 것을 다 초월하고 떠나서 임해 주어야 국민적 의심을 한나라당도 불식키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사립학교법 문제도 사실은 친일의 흔적이 묻어난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사립학교들이 친일행적을 지울 수 없는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흑시라도 이런 친일의 흔적이 있는 비리사학을 엄호하려는 것이라는 국민적 의심도 있습니다.

또 친일 매판자본의 흔적들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대한민국 현대정치사의 한가운데에 한나라당이 있었습니다. 이런 오해도 한나라당은 불식시켜야 됩니다. 과거사법 통과과정에서 보여준 한나라당의 모습은 역시 친일의 흔적을 지울 수 없다는 국민적 지적을 받을 만했습니다. 또 한나라당 당대표 선친께서 친일의 흔적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니냐 이런 국민적 의심도 불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동북아역사재단 문제는 단순히 한 법률의 문제가 아니고 사립학교법하고 연계를 시켜서 친일사학을 보호하고 독도 문제까지도 사학법에 연계시켜서 친일의 흔적들에 대한 오해를 스스로 사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교육위에서 논의되어 왔던 몇 가지 쟁점법안들은 완벽할 정도로 타

결을 다했습니다. 로스쿨 그렇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 그렇습니다. 무슨 갈등의 여지가 있고 쟁점이 있어야 파행이 되거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완벽하게 다 타결해 놓고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양당 간사들이 협의하라는 말로 오늘 상임위를 마치신다면 제가 지금 지적했던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또 전반기 교육위에 대한 반성과 하반기 교육위를 생산적으로 이끌겠다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아주 함축적인 문제가 오늘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라고 보니까 위원장님께서도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해 주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오늘 위원님들 말씀이 다 일리 있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간사회의를 소집하여 앞으로의 회의운영에 대한 논의를……

○**최재성 위원** 심사기일을 지정해 주세요.

○**위원장 황우여** 심사기일 지정을 포함해서 일단 간사회의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봉주 위원** 위원장님, 정말 우리당 위원들이 오늘 의사진행발언한 내용이 이해되고 접수 가능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위원장님께서도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 몇 월 몇 일까지 양당 간사가 협의를 하고 양당 간사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위원장님 직권으로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이런 자세를 보여 주셔야지 저희가 믿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우여** 잘 알겠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일단 간사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백 원 우 유 기 홍 이 인 영 정 봉 주
조 배 숙 지 병 문 최 재 성 황 우 여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전 문 위 원

류 충 현
구 기 성

○정부측 참석자

교육인적자원부

부 총 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차 관
정책홍보관리실장
학 교 정 책 국 장
대 학 지 원 국 장

김 진 표
이 중 서
정 영 선
김 홍 섭
김 화 진